

행복도시 이야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Vol 190 2023. 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행복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본격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3년
핵심
추진과제

-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 및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 ☑ '24년 입주대학 개교를 위한 공동캠퍼스 1단계 준공
- ☑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개관 및 창의진로교육원 개원
- ☑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해외 행정도시 협력을 통한 도시모델 수출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23년 업무추진 목표를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 행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월 5일(목) 발표했다.

2023년 중점 과제는 ① 국가기능을 강화한 실질적 행정수도, ②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 ③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이며, 각 과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한다.

행정수도로서의 국가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도시건설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구체적 기능·규모 및 입지 등이 담긴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제2집무실을 포함한 세종동(S-1생활권)의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절차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착수 절차를 지원하고, 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 및 업무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누리동(6-1생활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내부교통 개선과 광역도로 건설, 대중교통 확충도 추진한다. 연내 내부 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조치원 및 오송~청주 2구간 2개 광역도로 사업 개통, 광역BRT 공주(25년 개통) 노선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둘째,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및 앵커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테크밸리 잔여 필지를 분양하고, 세종테크밸리 2단계 조성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집현동(4-2생활권) 공동캠퍼스는 서울대, KDI, 한밭대, 충남대, 충북대 등 1차 입주대학의 '24년 개교를 목표로 금년 중 1단계 준공하고, 2차 입주대학을 승인한다.

국립박물관단지 중 어린이박물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개관하고, 나성동 중심상업지역과 중앙공원·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에 착수한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수소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 확대, 물·자원 순환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며, 제로 에너지타운(해밀동), 치유농업을 접목한 케어팜타운(다솜동), 청년주택·코리빙하우스(집현동) 등 다양한 특화주거의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UAM 도입 추진, 미래형 가로환경 구상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스마트 실증 공원과 지원 시설 등을 구축한다.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건설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그 외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수도이전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와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행복청도 최초의 설립목적을 뛰어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공주 광역 BRT 개발사업 추진 팬걸음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및 실무협의회 구성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세종~공주 광역 BRT*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는 지난 13일 공주시청에서 '세종~공주광역BRT 사업 추진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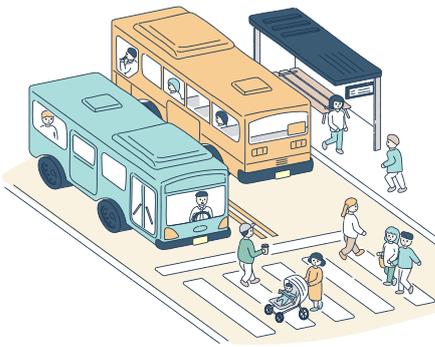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세종~공주 광역BRT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시장, 행복청 BRT기획팀장, 세종시 교통과 버스운영담당,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용역사 등 관계자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 주요의견으로는 실시계획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세종~공주 광역BRT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의 총 길이는 18.5km (세종시 한별동~공주종합버스터미널)이며 사업비는 172억 원이다.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올해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하반기 BRT를 운행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



[세종~공주 광역 BRT 운행 노선도]

행복청, '평생교육원' 건립공사 본격 착공

4차 산업혁명 사회 적극 대응, 2024년 준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평생교육원' 건립공사를 2023년 1월 본격 착공한다.

평생교육원은 산울리(6-3생활권)에 유·초·중학교와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교육 연계의 중심지에 위치한 시설로, 총사업비 49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 연면적 1만 3,64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속적인 인적역량 강화와 직업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적극대응을 위한 시설로서 세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과 전기, 기계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북카페 및 어울림마당,

다목적실 등이 갖추게 되고 지상 2층과 3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비롯해 동아리실, 음악감상실, 영상스튜디오, 중·소 강의실 등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위한 교육공간이 들어선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하여 중정 등을 활용한 자연환기와 스텝형 공간을 이용한 자연적인 거리두기, 언택트시대의 환경제공을 위한 통합형 출입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미래변화의 대응 및 창의적인 학습, 다양한 교육활동 등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립 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조감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신인작가 전시회 열어

신인작가의 전시기회 확대로 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수탁관리기관(코오롱글로벌(주))은 체육관 중앙로비 등 유휴공간에 1월 16일부터 2개월간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세종지회 소속 신인작가인 권오석씨의 마른 낙엽을 사용하여 만든 예술작품 50여점(나뭇잎 조각, Leaf art)이며, 이 작품들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흑등고래와 애완동물 등을 형상화하는 등 예술과 자연을 하나로 묶은 개성 있는 예술작품들이다.

앞으로, 행복청과 수탁기관은 그동안 전시공간 부족으로 작품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술인과 세종청사공무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전시공간 무료 제공, 작품전시 및 전시회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미술협회 및 세종시 문화재단 추천 작품, 지역 대학교 및 고교 졸업작품 등의 추가 전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누리집에 예술작품 전시를 신청 받아 순차적으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정부청사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와 같은 좋은 행사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조성에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행복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및 2022년 적극행정 우수부서(3개 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도시성장축진과 윤해인 주무관은, '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3년 운영(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입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공동캠퍼스 : 대학들이 교사(강의동 등) 및 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캠퍼스

우수상으로는 광역교통체계 등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세종~공주 광역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BRT 기획팀 이정열주무관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 스마트도시팀 강자영서기관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으로는 국내최초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도입을 추진한 공공청사기획과 김한규주무관과 상용차 수소 충전소 도입에 기여한 녹색에너지환경과 이연민주무관이 선정되었다.

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과 승진가점 등의 인사상 특전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등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은 도시정책과, 우수상은 스마트도시팀, 장려상은 BRT기획팀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법 개정, 예산확보 추진으로 공동캠퍼스의 완성을 높이다!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바이오지원센터 필요경비 마련 위한 '23년 예산 편성 확보

① 성과

- ▶ 공동캠퍼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23년 운영 공익 법인 설립 · 운영 및 바이오지원센터시설 인준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개정등이 필요한 상황
- ▶ 재정당국, 의원실 등 요구사항과 국민제안에 적극대응하고 추가 분량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 '23년 바이오지원센터 시설 인준 등에 대한 예산확보, 공익법인 설립 · 운영 예산 지원위한 법개정(안) 발의, '24년 개교를 위한 준비 노력 · 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수상 1

세종~공주 광역BRT 개발계획 승인(국내 첫 사례)

② 배경

타도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위해,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 추진

① 성과

- ▶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이 다수여서, 추진통력이 분산되어 있으나, 행복청 주도로 협업 · 조율 실시
- ▶ 세종~공주 광역BRT 개발계획 승인 · 고시로 통해, 광역BRT 승인 국내 첫 사례 성과발굴
- ▶ 기존 노선 버스 대비 통행속도 19.8Km/h → 27.9km/h로 8.1km/h 상승 (약 40%상승), 이통속도 57분 → 39분으로 18분 단축(약 35%감축) 효과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수상 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 · 관 합동 추진체계 구축

행복도시 5-1 생활권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구현!

② 문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이원화되어, 연계가 어렵고 유사계획을 중복 수립해야하는 불합리 · 행정력 낭비 상황 발생

① 성과

-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하여, 세종시와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는 일원화 체계 확립
- ▶ 민간 참여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관련의 선도주자가 되어, 관련 제도개선방안 발굴
* 민간 시행자의 도시운영 참여 방안(법개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으로도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해

성공적인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는
행복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언론(이데일리) 인터뷰

청장 Interview

청장 임명 후 가장 큰 수확,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한 것



Q1. 취임하신지 7~8개월 되셨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7개월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부임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익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국정과제 반영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집무실 건립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실·국회·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에 집중하겠습니다.

Q2.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22년 주력했던 건 무엇이었나? (성과 등)

2022년에 집중했던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전략도시로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신축을 확정하고,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전략도시 선도모델 완성'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생활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60%를 달성하도록 계획하는 등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관련 협력의 성과로 5억 달러 규모의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건설사업 협상을 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입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였고, 행복

도시~공주 BRT 노선은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부터 운행 예정입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 기조와 공약, 정책에 맞게 구체적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다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Q3. 2023년도 현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3년도의 정책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세부 과제로 국가기능을 강화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과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의 거점,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주요 사업을 연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입니다.

인근 지역을 포함한 '큰 구상'을 먼저 만들고, 이에 따라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인근 지역과 함께 국가적인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4.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한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22년 7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2년 8월 '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청 주관으로 국조실·행안부·국토부와 함께 범정부 합동추진단도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과 역할, 그에 맞는 적정 규모와 입지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22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과 인접공간을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3년 내 건축설계 등 본격적인 건설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으로 350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350억 원은 건설보상비로 건립부지를 사기 위한 계약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기본 계획과 국회규칙 등에 대하여 올해 국회 의사결정을 거쳐, 세종 의사당 설계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국회사무처가 올해 하반기 건립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조정과 예산배정 및 사업비관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6. 인도네시아와 수도이전 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한 걸 봤다. 우리나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하는 건가? 이 사례가 처음인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지?

행복청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행복도시 조성 경험 전수를 위해 '19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하여, '20년 1월부터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하여 행복도시건설 경험전수 등 정책자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주재 팀코리아'는 '21. 2월에 출범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수도이전 협력관을 중심으로 36개 팀코리아 참여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내 팀 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로 구성(12개), 지난 12. 14(화) 협약을 체결하고, 본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협력 및 진출에 관한 정보의 상호공유,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투자사업 공동발굴 및 맞춤형 참여전략 마련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진출에 참여의향이 있는 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내 공공기관·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7. 세종시청과 행복청의 업무 구분을 놓고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행복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행복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인 행복청이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를 건설한다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과제를 주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의 주요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지적하시는 분들은 조직 구분으로 인한 비효율이나 불편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면이 없도록 세종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8. 세종시 개발은 2030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이후에도 행복청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오타와·캔버라를 건설한 기관을 수도권 계획 및 국가시설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 호주 NCA(국가수도청) : 국가수도계획 수립·관리 중앙행정기관 캐나다

NCC(국가수도위원회) : 수도 개발계획 및 연방정부 소유자산 관리

행복도시도 2030년 완성 이후를 미리 대비하여 해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변화하고 국가 기능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국가의 관리 역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Q9. 장기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행복청이 나아가갈 방향이 있다면?

첫 번째, 국가의 상징성과 미래 수요 등 행복도시의 비전과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계획하고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마스터 플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입지한 지역의 전체적인 구상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성하여 장기적인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지역으로 도시건설과 균형발전의 효과를 확산 해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등 인근의 지역·도시와 긴밀히 연결하고 광역 공동생활권으로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건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agine your Korea 2023-2024 VISIT KOREA YEAR

2023.1.12 ~ 2.28 Korea Grand Sale

Korea Grand Sale

YOUR TRAVEL BUCKET LIST FOR KOREA

KVC VISIT KOREA COMMITTE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행정안전부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지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한수정작가와 함께하는 로블록스 게임 창작 워크숍

2023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세종)의 기획전시예 선보일 전시물을 어린이들이 미리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창작해 본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10명을 모집합니다

‘테크니쳐’를 개발한 한수정 작가와 로블록스 게임을 같이 만들고, 함께 만든 게임이 **개관 전시**에 선보이게 됩니다

참여링크

접수: 2023. 1. 25(수) ~ 2023. 2. 9(목)
발표: 2023. 2. 17(금) (예정) 개별공지

주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 / (주)피엔

제 15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모집기간: 2023. 02. 01(수) ~ 2023. 02. 22(수)
- 모집부문: 취재기자단 0명, 영상기자단 0명 (동부지역 가능)
- 지원 방법: 행복청 공식 블로그 모집공고에서 지원서 내려 받아 작성, 이메일 제출 (happycitysejongpress@gmail.com)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콘텐츠제안 3. 포트폴리오 (분야별 제출 포트폴리오 모집 요강 확인)
- 발표: 2023년 2월 중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공지 및 개별 통보)
-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기자단 운영사무국 (Mail) happycitysejongpress@gmail.com

활동안내

- 활동기간: 선발 시 ~ 2023.12월 말
- 활동내용: 현장 탐방 및 기사 작성

 - 취재 기자단: 매월 취재 기사 1건 이상 작성, 제출 사진 3컷 이상
 - 영상 기자단: 매월 1개 주제, 1분 이내 세로형 영상물(숏츠) 2건 이상 혹은 2분 이상 16:9 일반 영상물 1건 이상 제작, 제출

- 행사 참여: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행사 또는 행복청 및 소속·유관기관 행사 1회 이상 참여
- 혜택: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취재교통비 등) 지급 (활동 성과 및 콘텐츠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우수 기자 포상 명함 및 위촉장 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SNS 채널

-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